

# 귀환의 시간과 복권(復權)

— 망명 체험의 여성 서사

장영은\*

차례

1. 순장(殉葬)과 치환 퍼포먼스
2. 두 가지 요청, 보필과 양육
3. 경계도시의 경계들
4. 이발 자격증 혹은 실험 보고서

## 국문초록

여성이라는 하위 주체의 침묵이나 죽음을 저항이나 치환 퍼포먼스로 해석하는 작업의 중요성 못지않게 살아남기 위해 말하고 글을 쓴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독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특히, 망명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돌아오기 위해 글을 쓴 여성들의 청원서와 수기 형식에 주목하여, 1946년 주세죽이 스탈린에게 제출했던 청원서와 1999년 박성희가 귀국 후 출간했던 망명 수기를 분석했다. 주세죽의 청원서에서 주세죽이 생존과 귀환 그리고 복권을 위해 전(前) 남편인 박헌영에 대한 보필과 딸에 대한 양육을 간절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 그리고 박성희가 베를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선택한 글쓰기의 의미를 기억의 복원과 주체 회복의 의지로 독해했다. 또한, 여성 망명자의 주체 회복의 의지와 그 과정을 귀환의 여정과 연결시켜 본다면, 망명 여성의 서사는 망명 여성의 복권(復權) 과정이며 동시에 망명 체험의 서사가 역사에 개입되는 역사적 글쓰기로 평가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수료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망명, 귀환, 여성 서사, 속청, 복권(復權), 하위 주체, 순장(殉葬), 주체 회복, 주세죽, 박성희

내가 왜 죽어, 꼭 산다.<sup>1)</sup>  
-강경애, 『소금』 중에서-

## 1. 순장(殉葬)과 치환 퍼포먼스

말할 수 없는 여자는 죽는다. 말 못 하고 죽어가는 여자들의 침묵을 읽어내고 그 죽음의 의미를 사유하면서, 과연 이 여자들은 말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스피박이었다.<sup>2)</sup> 이 여자들은 아마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끝끝내 말할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스피박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졌다. 남편을 화장할 때 아내가 장작더미에 자신의 몸을 태워 죽어야 하는 인도의 순장(殉葬) 풍습인 사티(sati)를 둘러싼 영국 제국주의 식민 담론과 인도 가부장제의 대립을 분석하면서 스피박은 양쪽의 담론 주체에서 철저히 소외된 인도의 하위주체인 여성(하층민)들을 주목했다. 영국 제국주의 담론과 인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1829년 인도

---

1) 강경애, 『소금』(『신가정』, 1934.5~10), 이상경 편집,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1999, 515쪽.

2)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edited by Cary Nelson & Lawrence Grossberg, *Marxism and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6, pp.271~313, 태혜숙의 번역을 부분적으로 참조했음. 가아트리 스피박, 태혜숙 옮김, 『하위주체가 말할 수 있는가』, 『세계사상』 4, 동문선, 1998.

총독은 사티를 폐풍(弊風)으로 규정하고 금지법령을 선포했다.<sup>3)</sup> 그러나, 법령 선포 이후에도 사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폐지나 존속이나를 놓고 대립했을 뿐, 강력하고 완고하다는 점 그리고 정작 장작더미에 몸을 던져 타 죽어야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배제시켰다는 점에서 영국 제국주의와 인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서로 통했다.<sup>4)</sup>

스피박은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 여성의 발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죽음의 시기를 생리 기간으로 선택했던 젊은 인도 여성 부바네스와리 바두리의 침묵 속에서 몸으로 맞서는 저항의 가능성을 읽어낸다.<sup>5)</sup> 사망 당시 16세 내지 17세의 나이로 추정되는 부바네스와리

3) 인도 식민 통치자들의 사티 제도 폐지론의 핵심은 인도 여성 구제와 인도 문화의 향상이었다. 식민관료 가운데에는 사티로 순장 당하기 직전 불구덩이에서 여성을 구해내어 그녀를 아내로 삼은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다 스스무, 김은주 역, 『동양의 광기를 찾아서』, 르네상스, 2004, 94~95쪽. 한편, 사티 금지법령을 선포했던 인도 총독은 힌두교도였는데, 사티가 산스크리트 법의 타락으로 생긴 것이므로 힌두교의 정신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인도 고유의 문화를 복원시키는 측면에서 사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토니 파그텐, 한은경 역, 『민족과 제국』, 을유문화사, 2003, 169~170쪽 참조.

4) 사티 제도의 폐지여부에 대한 입장은 인도 내부에서도 다양했지만, 존폐여부와 상관 없이 논의의 핵심은 과부가 어떻게 순결함과 절개를 지킬 것인가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Ashis Nandy, “Sati: A Nineteenth Century Tale of Women, Violence and Protest”, *At the Edge of Psychology—Essay in Politics and Culture*, Delhi: OUP, 1980, pp.1~31 참조.

5) 스피박은 서발틴의 침묵을 읽는 작업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스피박의 이러한 측면이 서발틴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레이 초우는 스피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스피박의 발언은 토착민을 침묵하는 대상으로서 영원히 고정시켜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녀의 말은 자기 목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토착민에 대한 경건한 방어를 낳고 너도나도 다른 종류의 ‘서발틴’과의 연대를 경쟁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사태를 야기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Bill Ashcroft et al., *The Empire Writes Black*, London: Routledge, 1989, p.178, 박경화,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고부웅 편,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152쪽, 레이 초우,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기술』, 이산,

는 1926년 북캘커타에 있는 아버지의 아파트에서 목을 땀고, 생리 중이었다. 과부가 아니었고, 혼외임신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그녀의 죽음은 인도 사회에서 해석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녀는 인도 독립 운동 계열 무장 항쟁 그룹의 일원이었으며 암살 지령을 받았으나 실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로 인도 내부에서는 부바네스와의 죽음을 암살 지령에 실패한 독립 운동 여성의 좌절과 헌신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스피박은 그녀의 죽음이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여자가 생리중이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역전시킨 치환 제스처였다고 분석했다.<sup>6)</sup> 생리 중인 여성은 몸이 더럽다는 이유로 생리가 끝나고 나흘째 되는 날까지 기다려다 순장되었던 당시 사티 제도에 대해 부바네스와의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저항했고,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그 저항의 의미를 스피박은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나는 이 여자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치환 퍼포먼스는 무엇이였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몸으로 맞서는 저항도, 말하지 못하는 여성들끼리의 연대도, 침묵 속 행간을 읽어내는 지식인의 작업과 실천도 모두 중요하지만, 나는 이 모든 전략과 전망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살 수만 있다면 살아(남아)야 하지 않을까? 생리 기간 중에 목을 매고 죽은 여성의 저항은 분명 큰 의미를 획득했지만, 죽음이 치환 제스처나 침묵 속의 저항으로 읽히는 것 이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일은 절실하다.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는 것, 살 수만 있다면 연대의 방식이든 호소의 방식이든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을까?<sup>7)</sup> 새삼 나는 살아남으려고 말을 하고 글

---

2005, 60쪽 참조.

6) Gayatri Chakravorty Spivak, op.cit., pp.290~313.

7) 고부웅은 스피박의 이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하층민 중의 하층민인 제3세계 여성의 억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나머지 제3세계가 처한 현실, 그리고 제1세계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일정한 정도 제3세계의 반식민 저항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의 제3세계 여성을 제3세계의 다른

을 쓰는 여성 또 그렇게 살아남아 무엇인가를 말하고 쓰는 여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때로는 더 절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망명지에 내던져진 여성들에게 살아남아 글을 쓴다는 일은 무엇이였을까를 떠올리다, 돌아오기 위해 글을 쓰는 여성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숙청을 정치적 순장(殉葬)이라 부르는 일이 허용된다면, 정치적 순장(殉葬)의 위협 앞에서 쓰인 이 한 장의 청원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 2. 두 가지 요청, 보필과 양육

스팔린 동지에게-청원서

저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박헌영 동지의 처입니다. 본인 한 베라(주세죽)는 1901년 조선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출생했습니다. 1922년 저는 박헌영 동지에게 시집가서 딸 박 비비안나를 낳았는데, 그녀는 현재 17세로 모스크바에서 발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922년에서 1934년까지 저는 남편 박헌영 및 김단야와 함께 조선에서 비합법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4년 제 남편 박헌영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된 후 저는 김단야와 함께 일제 경찰의 야수와 같은 추적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저는 김단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출판부에서 책임 교정원으로 일했습니다. 1937년 11월 5일 김단야가 체포되었고 그 뒤를 이어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5년간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943년에 유배항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저

---

사회구성체(가부장제)와 구별하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제3세계 여성이라는 최하층 민을 제외한 다른 집단들을 크게 보아 하나의 억압적 타자로 역구성함으로써 그 다른 집단들의 모순되게 구성된 중첩적 구조를 망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부웅,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식민주의·탈식민 이론·민족』, 문학과학지성사, 2002, 97쪽.

는 12년 동안 제 남편 박헌영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상황은 저로 하여금 김단야와 함께 살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1월에 『프라우다』신문을 통해 제 남편 박헌영이 살아 있으며 감옥에서 석방되어 다시 혁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 제 남편 박헌영을 통해 저에 대해 확인하셔서 제가 조선에서 다시 혁명 활동에 종사하게끔 저를 조선으로 파견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진정 충실하게 일할 것이며 제 남편을 이전과 같이 보필할 것입니다. 제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만일 제가 조선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모스크바에서 살며 제 딸을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빕니다. 제 딸 박비비안나는 지금 제 136학교에서 제9학년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 요청을 거절하지 말 것을 간절히 빕니다.

1946년 5월 5일 한 베라(주세죽)

주소: *프질오르다* 보스파니냐가 48번지, 한베라

딸의 주소: 모스크바, 모이시예프 발레연구소, 차이코프스키 발레과 박비비안나<sup>8)</sup>

이 청원서는 주세죽이 자신을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박헌영 동지의 처”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김단야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모스크바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되었던 주세죽은 스탈린에게 보내는 청원서에 박헌영을 한결같이 “남편”이라고 호명하면서 자신을 “박헌영의 처”로 복원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청원서의 공식적인 수신자는 스탈린이지만, 주세죽이 염두에 두었던 또 한 사람의 수신자는 박헌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박헌영을 남편으로 “보필”할 기회를 되찾는 것이 “다시 혁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세죽은 알고 있었다.<sup>9)</sup> “진정 충실하게 일할 것”을 맹세하는 주세죽의 청원서에서 ‘충성’

8)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 박헌영 전집8』, 역사비평사, 2004, 922~923쪽.

과 ‘사랑’은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는 어떠한 긴장관계도 가치적 갈등이나 분열도 일어나지 않는다.<sup>10)</sup> 따라서, 주세죽의 청원서는 “혁명 활동에 종사”했던 한 사회주의자의 복권 신청서이기도 했다.

일본의 스파이 혐의로 처형된 김단야의 아내라는 이유로 모스크바에서 추방되어 기약 없는 유배생활을 하고 있던 주세죽은 사회주의 운동가로서의 공적인 삶이 모두 몰수되는 숙청을 당했다. 한 때 망명이 사회주의자로서의 정통성을 입증해주는 표식이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주세죽은 망명지에서 사회주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조선으로 돌아가 사회주의자로 활동하기를 희망하게 되었다.<sup>11)</sup> 망

9) 공적 참여의 기회를 사적인 관계로 획득하고 회복하려는 여성의 시도는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공적 장치들이 여성들을 사적으로 통제하고, 가정이라는 사적 공동체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케이트 밀렛은 “여성에게 법적 시민권을 허용한 가부장제 사회에서조차 여성은 가족을 통해서만 지배를 받으며, 국가와는 그 어떤 형식적 관계도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케이트 밀렛, 김전유경 옮김, 『성 정치학』, 이후, 2009, 88쪽 참조.

10) 하시가와 분쥬는 연애와 충성이라는 문제를 이념으로서의 가족국가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여 연애가 국가에 대한 충성(loyalty)으로 이어지는 구조, 더 넓게는 충성이라는 국가 가치가 연애라는 사적 감정의 가치를 포용하게 되는 과정을 날카롭게 분석한 바 있다. 橋川文三, 『『葉隠』と『わだつみ』』, 『橋川文三著作集1』, 筑摩書房, 1985, pp.312~319 참조.

11) 1938년 3월 15일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국가보안총국 소속 경찰관은 주세죽을 대상으로 심문조서를 작성했고, 이는 러시아연방 국가보안위원회 문서보관소에 『한베라 개인 파일』로 소장되어 있다. 이 심문조서에서 주세죽은 두 차례에 걸친 소련 망명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8년 8월에 나는 내 남편 박헌영과 함께 일제경찰의 추적을 피해 비밀리에 소련으로 도망 왔다.(……) 소련에 있는 동안 우리는 상당 기간 정치망명가들을 위한 집에서 거주했으며, 1929년에 동방노력자공산대학 A반에 입학하여 1931년까지 공부했다. 1932년에 남편 박헌영과 함께 해외사업을 위해 상해로 가서 지하활동에 종사했다. 1933년에 내 남편이 체포되었고, 이후 나는 일정 기간 상해에 체류하다가 1934년에 김단야와 함께 소련으로 돌아왔다.(……)모스크바로 와서 나는 5개월 가량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공부했고, 이후 외국인노동자 출판부에서 교정원의 일을 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이 사회주의 운동의 조건이자 가능성이었던 시간은 지나가고, 귀환이 사회주의 운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sup>12)</sup> 현재 시점의 망명지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가능했던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세죽은 과거의 시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의 이동을 결심했고, 그것이 조선으로의 귀환이었다.

특히, 주세죽의 경우 망명지에서 숙청/추방/유배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형기와 상관없이 늘어가는 망명지에서의 유배 기간이 죽음과 맞닿아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간파했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선 유배 지역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1930년대 스탈린의 숙청 방법 가운데 하나였던 ‘고립시키되 목숨은 살려둘 것’이라는 지시는 모든 생산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었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국가사회주의 시스템 안에서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박탈하는 조치였고, 이는 곧 생존권 위협을 뜻했다.<sup>13)</sup> 그러나, 조선으로의 귀환을 “간청”한 이 청원서는 내적 필연성

---

이정박현영전집편집위원회, 앞의책, 912~916쪽 참조. 한편, 심훈은 『東方의 愛人』에서 주세죽·박현영의 상해 망명 시절을 재현했는데, 이 소설에서는 상해라는 공간을 벗어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암시된다. 沈熏, 『東方의 愛人』, 『沈熏文學全集』 2, 탐구당, 1966.

12) 코젤렉에 따르면 공간개념이었던 유토피아가 미래라는 시간구조 속에 설정되면서 시간구조 속에 미래가 차지하는 몫이 커지고 동시에 비대칭적 시간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코젤렉이 밝히고 있는 근대적 시간 구조의 특징이다. 라인하르트 코젤렉, 한철 옮김,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8, 235~415쪽 참조.

13) 스탈린에 대한 풍자시 발표와 유포 혐의로 1934년에 체포된 오십 에밀레비치 만델슈탐은 반혁명문서 작성 및 유포죄가 적용되어 3년 간 추방되었다. 스탈린은 ‘고립시키되 목숨은 살려둘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만델슈탐은 노동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국가 배급망에서 제외되어 목숨을 어렵게 연명해나갔다. 스탈린 공포정치 시기의 산물인 반복수감 원칙으로 1938년 재수감되어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만델슈탐의 아내인 나데쥬다 만델슈탐은 남편의 숙청 과정과 1930년대 러시아 예술계 및 정치 상황을 담은 회고록을 발표했고, 부조리한 시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증언하겠다는 의지를 회고록 집필을 통해 실천했으나, 그 과정은 간단치 않았다. 남편의 숙청 이후 모스크바에서 거주가 불가능했으므로 나데쥬다 만델슈탐은 공장



과 명분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고, 조선으로의 귀환에 실패했으므로 주세죽은 박헌영의 아내로도 “혁명 활동 종사자”로도 자신의 위치를 되찾지 못했다.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찌면 주세죽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제가 조선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모스크바에서 살며 제 딸을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라는 대목을 읽을 때, 귀환의 절박성과 가능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세죽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이 예감은 적중했다. 박헌영의 아내로 돌아가 조선에서 혁명 활동에 다시 종사하고자 한다는 사회주의자로서의 복권 신청은 물론이고, 모스크바에서의 딸의 양육이라는 사적 영역의 “요청” 역시 거절당했다. 주세죽이 최후로 매달린 보필과 양육은 점점 실현 불가능한 영역으로 주세죽에게 멀어지고 있었다. 청원서가 작성된 카자흐스탄 꼬질오르다에서 방적공 등으로 생활하던 주세죽은 1953년 말 국가기밀누설 및 간첩 혐의로 체포된 박헌영의 소식을 듣고 딸의 신변을 걱정하여 꼬질오르다에서 모스크바로 가던 중 폐렴에 걸려 모스크바 도착 직후 사망했다.<sup>14)</sup> 유배형기 5년을 마치고도 3년이 지나 사회주의 운동가로든 어머니로든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고 이 청원서를 적어 내려가야 했던 주세죽의 상황을 상상하는 일은 1958년 연안과 숙청에서 죽지 않기 위해 전(前) 남편인 최창익의 “역사적인 죄악폭로문”을 읽어야 했던 허정숙의 심정을 짚어보는 일 만큼이나 쉽지 않다.<sup>15)</sup>

---

노동자, 번역가, 교사 등 각종 직업을 전전하며 소비에트 전역을 떠돌면서 회고록을 집필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테쥬다 만델슈탐, 홍지인 옮김, 『회상』, 2009, 21~85쪽, 579~612쪽 참조.

14) 임경석, 『이정 박헌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468~469쪽,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469쪽 참조.

15) 스탈린 사망 이후 1956년 2월 14일 열린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는 사회주의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쳐 각국 공산당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망명지에 내던져진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의 고통의 크기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의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망명을 체험한 여성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 그들을 원한(Ressentiment) 맺힌 존재들로 규정지어 버리지는 않을까?<sup>16)</sup> 그것이 두렵다. 물론 원한이 삶의 동력이 될 때도 있고, 원한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겠는가?<sup>17)</sup> 맺힌 원

---

은 개인숭배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최창익·김두봉 등 이른바 연안파 인물들이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면서 반(反) 김일성 전선을 확대시켜 나갔으나, 1956년 말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 정세가 다시 변화하면서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김일성 반대파들의 입지는 위태로워졌다. 김일성은 1958년 3월부터 최창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대파 숙청 작업에 들어갔고, 7월 경에 체포되었다. 1935년 중국으로 최창익과 망명을 떠나 무장 독립투쟁을 한 허정숙은 1937년 최창익과 결혼했고, 해방 후인 1945년 12월 귀국한 뒤 이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1946년 최창익의 결혼식에서 허정숙이 축사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전 북한군 사단 정치위원의 회고에 따르면 허정숙은 “최창익도 숙청하고 우리 함께 혁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놈과 같이 죽고 싶어서 그러는거” 등의 협박과 핍박을 100일 동안 받다가 결국 중앙당 조직부 지도원이 준 “최창익 폭로문”을 울면서 읽었고, 그 후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지연, 『최창익 연구』, 백산서당, 2009, 161~168쪽, 『전 북한군 사단 정치위원 여정 수가-비화 김일성과 북한』, 『동아일보』, 1990. 6. 24, 이철,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사건』, 다산초당, 2008, 239~260쪽 참조.

16) 권명이는 자기를 수난자로 정립하는 서사를 수난사 이야기로 규정하고 여성 수난사 이야기를 수난사 이야기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분석을 한 바 있다. “하위 주체들이 자신의 손상된 지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체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들에서도 자기 서사로서 수난사 이야기 구조가 나타난다.(……)나는 여러 지점에서 수난사 이야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수난사 이야기가 하위 주체의 진정한 해방을 가능하게 하기보다, 손상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원한을 되풀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탈식민화와 재식민화의 경계』, 책세상, 2009, 281~309쪽 참조. 인용은 282~283쪽.

17) 해소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상상 속의 복수를 통해 위안 받으려는 마음을 니체는

한을 풀거나 원한의 깊이를 설명하는 일이 아닐까? 결국 그러한 서사 구조 안에서 망명을 체험한 여성들은 영영 원한 안에 갇혀 버리게 된다.<sup>18)</sup> 원한 안에 갇힌 사람은 피해자로 남거나 순교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고립된다. 니체의 말처럼, “다만 원한의 독이 서린 눈을 통해 거꾸로 색깔 되고, 거꾸로 해석되고 거꾸로 보일 뿐이다.”<sup>19)</sup>

나는 고통이나 원한에 사무친 망명지의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대신 망명지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무엇인가를 하려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망명지에서 귀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글을 쓴 여성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주세죽의 청원서에서 내가 발견하는 감동은 주세죽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나 극한의 고통에 있지 않다.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청원서를 쓰는 행위. 그것은 고통이나 원한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한 장

원한(Ressentiment)으로 규정했다. 이 원한이 기독교의 기반이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기독교가 유럽 전체를 지배했다는 것이 니체의 설명이다. 기독교 문화에서 강자에 대한 선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대다수의 약자들은 ‘강자는 악하다’라는 가치 평가를 내리게 되고, 이런 판단은 ‘약자야말로 선하다’라는 가치평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니체는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를 지닌 올바른 행위는 이러한 원한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실제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것 그 중에서도 기쁨을 가져다주는 힘의 고양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도덕이 발생하는 본래적 근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한에서 도덕을 찾으려고 한 자들을 노예 혹은 약자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니체, 송무 옮김, 『우상의 황혼/반그리스도』, 청하, 1984, 니체, 김정현 옮김, 『니체전집14-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김진석,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 개마고원, 2009 참조.

18) 망명 체험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실험성과 혼종성을 확보한 디아스포라 여성 문학 텍스트로 평가받는 차학경의 『딕테』에서도 자신의 어머니, 유관순, 잔다르크의 수난사를 강조하면서 순교자로서의 여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학경, 김경년 옮김, 『딕테』, 2004, 34~41쪽, 54~71쪽 참조.

19) 김진석의 번역을 인용했음. 니체, 『도덕의 발생학에 대하여』, 첫번째 논문, No. 11, 김진석, 앞의 책, 81~82쪽.

의 청원서를 쓰는 일이 폭력적인 사회에 맞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기간에 목을 매고 죽는 일 이상으로 세상을 역전시키는 치환 퍼포먼스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원서 한 장으로 세상을 얼마나 역전시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서를 쓰는 시도 안에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돌아가야겠다고 요청하는 글을 쓰는 행위 속에서 역설적인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다. 바로 누가 들어주지 않고 읽어주지 않는다 해도,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써야 할 것을 써 내려가는 데에서 찾게 되는 희망이다. 이 과정을 복권(復權)이라 표현하는 것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후의 문제를 밝히자면, 나는 복권(復權) 보다 복권 신청서 작성이 আগে 온다고 믿는 사람이다. 복권 신청서를 써야 복권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베를린에서 8년 간 망명 생활을 했던 한 여학생 통일 운동가가 귀국 후 “만 2년 간” 써 내려간 망명수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같다. 논의의 공간을 베를린으로 옮겨본다.<sup>20)</sup>

20) 유학 후 베를린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던 윤이상은 동백림 사건으로 독일 망명을 신청했고, 신변 위협의 문제 등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그 이후 윤이상의 귀국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으나, 귀국 조건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한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결국 귀국은 무산되었다. 윤이상 사망 3년 후인 1998년 윤이상의 아내 이수자는 남편의 일생을 회고록 형식으로 출간했다. 회고록의 서문에서 이수자는 “그가 후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간 이상, 나는 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내로서 그의 발자취를 역사에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가 나에게 남겨놓은 과업이라 생각하며, 긴 세월 동안 그가 나에게 보내온 서한과 자료들을 챙겨 힘과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썼습니다.”라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윤이상·이수자 부부의 일대기를 회고하고 있는 이 책에는 동백림 사건 이후 통일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작곡가 윤이상의 활동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도시 베를린에서의 망명 생활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상·하』, 창작과비평사, 1998 참조.

### 3. 경계도시의 경계들

1991년 전대협 대표로 방북했던 박성희는 1998년 귀국 후, 한 권의 망명 수기를 출간했다.<sup>21)</sup> “19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전대협 대표 임수경 씨의 평양축전 참가로 통일 운동에 대한 열기는 고조되고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흐르던 통일운동을 양자 간의 운동으로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통일을 한 1년 앞당겨볼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방북을 결정한다. 통일이라는 미래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이동이 금지된 공간을 넘어서게 했다.<sup>22)</sup> 여기에는 (혁명의) 시간을 앞당길

21) 박성희, 『베를린, 그리고 3천일 만의 귀향-전 전대협 남측 대표 박성희의 망명수기』, 한울, 1999

22) 임철규는 노스텔지어는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에 동의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현재의 모순을 지양하고 미래의 이상사회를 구현할 비전을 제공하는 일과 맞닿아있다고 분석하면서 미래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기억의 정치화’, ‘유토피아적 욕망’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철규, 『귀환』, 한길사, 2009, 13~17쪽 참조. 그리고, 재독 철학자 송두울은 경계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향은 과거를 되살리는 세계다. 그러나 이 원초적인 세계로서 통일은 더 이상 그러한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 중의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밟아보지 못한 ‘미래의 고향’을 의미한다.” 송두울,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 후마니타스, 2007, 225쪽. 한편, 김철은 낯선 시간과 장소에 놓인 주인공-영웅이 잃어버린 가능성의 시간들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이야기를 근대적 노스텔지어의 표현물로 해석하여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품을 재독했다. 김철은 혁명에 대한 열망과 전통에 대한 소속이 공존하는 근대적 노스텔지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기영의 『고향』, 『신개지』, 『처녀지』에 “모더니티의 변화된 시간관, 특히 직선적 진보 이념을 바탕으로 현실의 존재론적 구축을 통속적 혹은 정신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미래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프롤레타리아를 식민화의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를 ‘식민주의적 노스텔지어’로 규정한 바 있다. 김철, 『프롤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텔지어의 시공(時空)』,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165~188쪽 참조. 미래를 향한 노스텔지어에 관한 논의 및 노스텔지어에 관한 상반된 입장에 관해서는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Susannah Radstone, *The Sexual Politics of Time: Confession, Nostalgia, Memory*, London: Routledge, 2007 참조.

수 있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었다.

박성희 일행이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자 전대협은 방북단 파견사실을 공개했고, 언론의 오보는 계속되었다. “내가 북한으로 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평양 상주대표 파견설’과 용승이가 비밀결사조직의 성원이었다는 보도, 우리가 이미 쿠비를 통해 방북을 시도한 바가 있었다는 보도, 그리고 내가 1년 전 일본에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했을 수도 있다는 보도” 등 대학 4학년이었던 방북 대표단은 며칠 사이 “무시무시한 사람들로 둔갑”해 있었고, 베를린으로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지 않자 “신문에는 또다시 독일까지 자식을 찾아온 부모조차 따돌린, 천륜도 인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sup>23)</sup> 그러나, 정작 예상치 못한 일은 85일간의 방북 일정이 끝나고 일어났다. “돌아가면 구속되겠지, 그리고 몇 년 후엔 석방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박성희에게 전대협은 베를린에 설치한 ‘범청학련 건설을 위한 공동연락본부’에서 일할 것을 지시한다.

1989년 임수경이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분단 이후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걸어 넘어 와서 수감 중인 상태에서 전대협은 8월 15일 예정되어 있던 판문점을 통한 귀환 대신 박성희에게 독일 망명을 선택하게 했다. 실제로 판문점을 넘어 돌아오는 정치적 행위의 파급력은 방북으로도 판문점 귀환으로도 ‘최초’인 임수경을 넘어서기 어려웠을 것이고, 만약 판문점 귀환이 더 이상 큰 사건이 될 수 없다면 박성희가 망명자의 신분으로라도 해외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조직은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망명지에

23) 사회주의자와 가족의 관계, 전향 소설에서 사회주의자가 가족의 삶 안으로 축소된 형상으로 부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혜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64, 2008 참조.

남겨져 통일운동의 구체적인 임무까지 맡은 박성희라는 한 여성이 감당해야 할 생존의 무게였다. 망명지에 남으라는 지시가 있었을 뿐, 망명지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는 이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일은 망명지에 남겨진 자의 몫이었다. “망명자들의 활동은 이론 이전에 스스로 정당했으나, 그 활동의 내면적 이론화가 활동 자체의 사실적 위대성만큼은 병행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정은 ‘사실’의 일방적 독주에 주박(呪縛)당할 소지가 되었다”<sup>24)</sup>고 한 최인훈의 통찰처럼, 역시 망명자에게 남겨진 과제는 망명 이후의 삶이었다.

1년 후 범청학련 결성이 이루어지자 박성희는 “내 임무는 모두 끝난 것이다. 이제 조직이 생겼으니 남과 북, 해외가 모든 일들을 잘해나가겠지. 그리고 이젠 마음놓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귀환은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전대협은 설상가상으로 ‘공동연락본부를 공동사무국으로 개편하고 박 대표가 사무국장을 맡는다’라는 공문까지 보내왔다.” 북한 밀입국보다 서울로의 귀환이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전대협이 사전 협의도 없이 만들어놓은 이 “설상가상”의 상황에 대해 박성희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베를린에서 체류연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연방관청으로부터 망명심사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뉘른베르크로 향한다. 망명심사청문회의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했다.

“당신은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하고 망명을 신청했습니까?”

“전대협은 1991년 6월 북한의 대학생들과……”

“당신의 조직이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전대협의 대표로 북한을 방문하여 전대협의 위임에 의해……”

“당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24) 최인훈, 『최인훈 전집15-회두2』, 문학과지성사, 2008, 77쪽.

“나는……방북을 하여 남북학생들의 공동집회에 참석하고……전대협이 결정에 의해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나는 당신이 한 일을 묻는 것이지 당신의 조직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치적 활동은 무엇이었습니다?”<sup>25)</sup>

망명 생활은 조직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의 조직이 아니라 당신의 정치적 활동”을 묻는 망명심사청문회의 질문과 추궁은 타당했다. 다만, “전대협의 위임”과 “전대협의 결정”으로 움직인 박성희가 조직이 아닌 자신의 활동에 대해 대답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망명을 신청 하면서 ‘자신’의 망명 사유를 밝히지 못한 박성희는 망명 생활 8년 동안 그 답을 찾아간다. 그 사이 전대협은 한총련으로 바뀌었고, 박성희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범청학련 남북해외 공동사무국 한총련 과전 대표직으로 베를린에서 활동했다. 박성희는 “조직”인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과 북으로부터 모두로부터 결국은 버림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점차 강하게 가지게 되지만, 반대로 이 기간 동안 조직의 정치 활동이 아닌 자신의 정치 활동을 모색하는 변화를 가진다. 조직으로부터 점점 버림받아 갔으며, 고립되지는 않았다.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한총련의 지시와 상관없이 박성희와 베를린의 동료들은 북한 기아 이동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고, 한총련과 범청학련 조직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했다.<sup>26)</sup> 그러자 곧, “남과 북, 해외의 범청학련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1998년 귀국이 추진되고 있을 때, 한총련은 “5명의 전임대표들은 입국을 하게 될 경우 결코 백만학도

25) 박성희, 앞의 책, 42쪽.

26)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강경애 작품에서 모성을 통한 서발된 여성들의 주체화와 주변 여성들 간의 ‘우연한 연대’에 대한 고찰로는 구재진, 『이산문학으로서의 강경애 소설과 서발된 여성』, 『민족문학사연구』 34, 2007, 392~413쪽 참조.



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게끔 현명한 처신을 하리라 굳게 믿으며 한총련 백만학도는 5대표들에 대한 동지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성희는 이 성명서를 보고 “귀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총련이었던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망명지에서 살아남아 돌아가고자 하는 주체는 조직이 아니라 베를린에 내던져졌던 망명자 개개인이었으므로 박성희의 반문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반문의 과정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 망명지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들의 귀국을 우려하며 그들을 “철없는 대표들”로 몰아가는 한총련의 성명서는 “다섯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통히도 안기부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다.” 북의 성명서도 마찬가지였다. 박성희 측이 북한과 한총련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자, “국내에 들어가고 싶어서 북한과 한총련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인 지면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sup>27)</sup> 이처럼 귀환하지 않고 망명지에서 침묵하며 사는 것을 망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sup>28)</sup> 그러나 그 당위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망명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독일에서 “이발 기술”을 배워 취직을 할까 고민하

27)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한총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높아졌고, 이에 한총련 내부는 더욱 극단적이고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고립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한총련에 대한 비판을 이치메 현상으로 보고 국가/미디어/지식인으로부터 한총련이 축창으로 숙청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총련 내부의 목소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진섭, 『희망에反하여 희망하라-한총련을 위한 변명』, 살림터, 1999 참조.

28) 1990년 초부터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 관련 작업이 체제 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모색이라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의 기억을 서사화한 비전향장기수 이야기를 귀환 서사와 기억의 정치학의 문제로 연결시킨 논문으로는 임유경, 『북한 소설과 기억의 정치학-‘비전향장기수 주제’를 중심으로』, 『사이』 4, 2008 참조.

던 박성희는 “이발사 자격증을 따는 대신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귀국이 추진되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독일에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하고 앞날을 걱정하던 박성희 일행은 1998년 8월 귀국한다. 귀국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보름 후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

돌아온 박성희는 글을 쓴다. 귀환은 이루어졌고, 글쓰기가 시작된 것이다. 경계도시(Grenzstadt) 베를린을 “한반도 통일의 실험실” “역사의 실험실”로 호명하면서, 자신의 망명 수기를 실험 보고서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이 실험 보고서가 작성된 “역사의 실험실”은 보고서를 쓰기에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박성희의 신분은 난민이었다. 조직의 위임과 결정에 따라 베를린으로 왔지만, 막상 베를린에서 자신은 어떤 조직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생존이라는 벌거벗은 인권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sup>29)</sup> 이후 망명 심사를

29) 미국에서의 망명 체험이 유대인 여성인 한나 아렌트에게 난민과 무국적자 문제를 성찰하게 했고, 이것이 『전체주의의 기원』의 근간이 되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난민 및 무국적자 문제와 전체주의 발생의 상관관계를 매우 정치하고도 날카롭게 분석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혈통과 출생의 권리에 의해 국민공동체에 속한 자에게만 시민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족의식이 크게 대두되었고, 그 결과 국가는 법의 도구에서 민족의 도구로 타락했다. 곧 민족이 국가를 정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국민국가에서도 무국적자 문제로 발생했는데, 1차 세계대전 중 확대된 귀화 취소와 실향민의 증가에 의해 생겨났다. 여기에 러시아 혁명 후 소련 정부가 수백만 명의 망명 러시아인의 국적을 박탈한 일이 일어났고, 이는 망명권과 귀화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1차 대전 이후 대량의 망명과 귀화가 발생하자 이것이 단일민족의 국민국가를 다민족국가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나머지 각국에서 망명이나 귀화를 인정하고, 기존의 망명과 귀화를 부정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무국적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법을 위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경찰권의 확대를 초래했고, 경찰국가의 확대가 전체주의로 이어졌다. 심지어 1930년대 말 난민을 인근 국가로 밀어내서 처리하려는 인간 밀매가 일어나기도 했다. 무국적자, 난민, 이주민들은 추상적인 햇볕을 상태에 처해 있었고, 아렌트는 인권이 주체인 인간이 민족으로 대체된 사태의 심각성을 비판하면서, 인권을 가질 인권, 국가에 우선하는 법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나

거쳐 난민보다 조금 안정된 신분인 망명자로 분류되지만, 망명자에게는 거주 지역 제한과 망명 거부/추방의 위험이 따랐다. 거주권을 얻기는 했지만 이동이 제한되었고, 생계는 언제나 불안했으며, 통일 운동 조직과는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자신이 베를린에서 만들었던 조직의 폐쇄 과정까지 지켜보게 되었다. 방북단으로 서울에서 파견된 후배를 설득하여 북한이 아닌 서울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언론에 공개적으로 북한과 한총련을 비판하는 일보다 이 과정은 더 외로운 시간이었다.<sup>30)</sup>

“폭언을 쏟아 붓던 다정했던 사람들”과 “그렇듯한 유언비어”에 박성희는 절망하지 않는다. 대신 1993년 박성희의 망명 생활을 도와오던 유학생 김정수와 결혼을 한다. 문병란 시인은 결혼 축시로 “同伴者-그대들의 결혼은 남북통일”을 보냈다. 1994년 1월에 딸을 출산하고 박성희는 베를린에서 “아줌마”가 되었다. “학생대표활동은 점점 힘들어졌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회의를 해야 했고 아이가 울어대기 시작하면 하던 이야기를 다섯 번쯤 반복할 만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박성희 스스로가 “평범한 삶”이라고 표현한 “망명자로서의 삶”에는 방북/망명/해외 조직 실무/결혼/출산/육아/가사노동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

---

아렌트, 박미애·이진우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1』, 한길사, 2006, 509~525쪽, 박홍규,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한국 인문학의 왜곡된 추상주의 비판』, 글항아리, 2008, 348~353쪽 참조. 또한 망명자로서 파리아 개념에 천착했던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적 사유와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니콜 라피에르, 이세진 옮김, 『다른 곳을 사유하자』, 푸른숲, 2007, 87~94쪽 참조.

30) 1939년 조광에 발표된 백신애의 작품『혼명에서』는 방향 전환자의 심리를 외로움으로 접근하여 방향 전환과 이혼을 소외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동반자를 찾아 재혼을 하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소외를 극복하려는 사회주의자가 나온다. “나는 무한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큰 단체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그런 거랍니다. 단체적 훈련을 받아 온 사람은 혼자 떨어져 나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무력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인가 봐요…….” 백신애, 『혼명에서』, (『조광』, 1939.5), 최혜실 편집, 『아름다운 노을』, 범우, 2004, 247~278쪽.

것은 곧 망명 여성의 삶이었고, 따라서 박성희가 실험 보고서라고 지칭한 망명 수기는 망명 체험의 여성 서사이기도 했다. 조직의 위임과 조직의 결정을 따르던 망명 신청자에서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는 동반자를 찾아 어머니가 되고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일상에서 연대하며 조직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망명 여성의 주체를 회복해가는 서사의 과정이었다.<sup>31)</sup> 그녀는 쓰기 위해 돌아왔으며, “긴 여행은 그렇게 3천여일 만에 모두 끝났다.”

#### 4. 이발 자격증 혹은 실험 보고서

8년 동안의 망명 체험의 서사를 읽으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베를린에서 박성희가 겪은 고통이나 고립 혹은 절망이 아니었다. 나는 박성희가 이발 기술을 정식으로 배워 베를린에서 취직을 할까 고민하다 이발 자격증 대신 글을 쓰기로 결정하는 대목에서 망명 여성의 귀환과 글쓰기에 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박성희는 “7년 동안 다섯 명의 머리를 잘라온 실력”으로 이발사가 될 수도 있었고, 가정을 이룬 망명 여성으로 베를린에 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망명 체험을 글로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그 글을 돌아가서 쓰기로 한다. 쓰기 위해 선택한 귀환이었다.<sup>32)</sup> 귀환과 글쓰기 그것은 마치 오직 써내려갈

---

31) Sonali Perera는 여성 텍스트에서 재현되는 내면성, 비조직적 저항, 일상적 경험의 공유와 자발적 연대 등이 노동 계급에서 흔히 나타나는 남성적이고 혁명적인 표상과 대립된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non-revolutionary socialism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개념은 세계화/지구화 시대에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생존 방식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미학의 윤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Sonali Perera, *Rethinking Working-Class Literature: Feminism, Globalization, and Socialist Ethics*,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Vol. 19, No. 1, 2008, pp.2~10 참조.

때만 이루어지는 복권(復權)과 복권 신청서의 관계와도 같았다.

돌아가서 말하리라 결심했던 박성희는 말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리고, “통일을 5분쯤 앞당기기 위해” 떠났던 8년간의 망명 생활을 글로 썼다. 베를린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망명의 시간들을 2년 동안 쓴 박성희는 “통일을 5분쯤 앞당기기 위해 시작한 나의 긴 여행은 그렇게 3천여일 만에 모두 끝났다.”는 마지막 문장으로 8년의 망명 시절을 정리했다.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은 스스로 긴 여행이라고 표현한 망명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했다. 따라서, 2년 동안의 집필 기간은 (연장된) 귀환의 여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자신의 망명 체험을 다 써냈을 때 (마침내) 귀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성희는 왜 썼는가를 이야기했을 뿐 자신의 집필 동기와 경험을 원한에서 끌어내지 않았다. “고국에서 무엇인가 완성된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워줄 것 같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보다 자신 있게 30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글을 쓰는 행위는 원한 안에서 스스로를 버림받은 희생자나 순교자로 만드는 일보다 어찌면 더 힘든 일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피해 의식이나 환멸에 빠질 겨를도 없이 우선 써야하기 때문이다. 먼 곳에서 박해 받고 돌아온 자, 박해 받아 멀리 떠난 자의 아우라를 스스로 견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쓰는 동안 자신이 속해 있었던 조직과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모두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대해 스스로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때로 고통과 치유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포함한다. 사건 안에 의미가 개입되는 일 더 나아가서

---

32) 에토 준은 고바야시 히데오의 비평 세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사람은 시인이 나 소설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대체 비평가가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는 인간은 무엇을 대가로 해서 비평가가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江藤 淳, 『小林秀雄』, 講談社, 2002, p.9.

사건을 의미로 대체시키는 작업이 바로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주장은 이 망명 수기에서 어긋나지 않는다.<sup>33)</sup> 그렇게 박성희는 자신의 망명 체험을 서사화하는 것으로 망명의 의미를 자기 삶 안에서 되찾으려 했다. “통일을 5분쯤 앞당기기 위해” 시작되었던 8년간의 망명. 미래의 고향에 빨리 도달하겠다는 희망 아니 그 미래의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이상이 진행되는 시간구조 속에서 한 개인은 8년이라는 시간을 가속의 대가로 지불해야 했다.<sup>34)</sup> 그러나, 이 가속의 대가를 박성희는 참혹함으로도 파국으로도 채현하지 않았다. 다만, 망명이 비극적 시간구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읽는 동안 확인하게 했다. 주세죽의 청원서 작성이 그러했듯이 박성희의 실험 보고서 작성도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되찾으려는 글쓰기였다. 주세죽은 망명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귀환을 결심하고 글을 썼고, 박성희는 귀환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 망명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러니, 그들이 실제로 귀환하고 복권되었는가의 문제를 나는 여기

33) Hayden White, “The Value of Narrativity in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edited by Thomas Mitchell, *On Narra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p.2~3. 한편, 권보드래는 신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은 외국에서 개척자로서 이주의 서사를 주도하는 반면 여성 주인공은 부재를 견디고 귀환을 목표로 하는 망명객의 서사에 접근해 있다는 날카로운 분석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권보드래, 『신소설의 성(性)·계급·국가』, 『여성문학연구』 제2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12, 26~37쪽 참조.

34) 친문학적 시간과는 구별되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개념을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의 문제로 연결시켜 역사의 진보 개념을 재해석하고 역사의 생산가능성을 논의한 연구로는 라인하르트 코젤락, 앞의 책, 290~309쪽, 388~415쪽 참조. 또한, 폴 리콥르는 시간과 체험의 모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시간과 체험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체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고 기획하면서 체험된 시간을 이야기할 때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에 대해 고찰했다. 리콥르에 따르면, 과거/현재/미래는 일관성 있게 이야기되지 않고 체험과 기대가 불협화음을 이루지만, 이야기 안 사건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킨다고 해도 이야기가 이야기로서 하나의 일관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이야기 안에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폴 리콥르, 김한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1-줄거리와 역사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1999, 25~188쪽 참조.

서 굳이 따지지 않겠다. 이발 자격증과 망명 수기 사이의 대차 대조표를 그리지도 않겠다.

귀환과 망명 여성의 자기 서사가 선후관계를 이루는 혹은 일치되는 이러한 글쓰기를 역사적 시간을 재현한 역사적 글쓰기라고 부를 수 없을까? 그러나, 미래를 기획하다 망명지에 남겨진 여성들이 망명의 의미를 찾아가는, 망명 체험의 서사가 역사에 개입되는 이와 같은 역사적 글쓰기는 그 여성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말할 수 없는 여자는 죽는다. 살기 위해서는 말해야 한다. 그래야 겨우 그 여성들은 망명지에서 돌아올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성희, 『베를린, 그리고 3천일 만의 귀향-전 전대협 남측 대표 박성희의 망명  
수기』, 한울, 1999.

이정박현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 박현영 전집8』, 역사비평사, 2004.

### 2. 단행본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469쪽.

김진석,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 개마고원, 2009, 81~82쪽.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탈식민화와 재식민화의 경계』, 책세상, 2009,  
281~309쪽.

고부용,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식민주의·탈식민 이론·민족』, 문학과  
지성사, 2002, 97쪽.

박홍규,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한국 인문학의 왜곡된 추상  
주의 비판』, 글항아리, 2008, 348~353쪽.

심지연, 『최창익 연구』, 백산서당, 2009, 161~168쪽.

송두울,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 후마니타스, 2007, 225쪽.

이상경 편집,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1999, 515쪽.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상·하』, 창작과비평사, 1998.

이철,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사건』, 다산초당, 2008, 239~260쪽.

임경석, 『이정 박현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468~469쪽.

임철규, 『귀환』, 한길사, 2009, 13~17쪽.

최인훈, 『최인훈 전집15-화두2』, 문학과지성사, 2008, 77쪽.

최진섭, 『희망에 대하여 희망하라-한총련을 위한 변명』, 살림터, 1999.

최혜실 편집, 백신애, 『아름다운 노을』, 범우, 2004, 247~278쪽.

나데쥬다 만델슈탐, 홍지인 옮김, 『회상』, 2009, 21~85쪽, 579~612쪽.

니콜 라피에르, 이세진 옮김, 『다른 곳을 사유하자』, 푸른숲, 2007, 87~94쪽.

니체, 송무 옮김, 『우상의 황혼/반그리스도』, 청하, 1984.

니체, 김정현 옮김, 『니체전집14-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 라인하르트 코젤렉, 한철 옮김,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8, 235~415쪽.
- 레이 초우,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이산, 2005, 60쪽.
- 안토니 파그덴, 한은경 역, 『민족과 제국』, 을유문화사, 2003, 169~170쪽.
- 오다 스스무, 김은주 역, 『동양의 광기를 찾아서』, 르네상스, 2004, 94~95쪽.
- 차학경, 김경년 옮김, 『딕테』, 2004, 34~41쪽, 54~71쪽.
- 케이트 밀렛, 김전유경 옮김, 『성 정치학』, 이후, 2009, 88쪽.
- 폴 리콤피르, 김한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1-줄거리와 역사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1999, 25~188쪽.
- 한나 아렌트, 박미애·이진우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1』, 한길사, 2006, 509~525쪽.
- 江藤 淳, 『小林秀雄』, 講談社, 2002, p.9.
- 橋川文三, 『『葉隱』と『わだつみ』』, 『橋川文三著作集1』, 筑摩書房, 1985, pp.312~319.
-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 Susannah Radstone, *The Sexual Politics of Time: Confession, Nostalgia, Memory*, London: Routledge, 2007.

### 3. 논문

- 김철, 『프롤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탤지어의 시공(時空)』,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165~188쪽.
- 구재진, 『이산문학으로서의 강경애 소설과 서발턴 여성』, 『민족문학사연구』 34, 2007, 392~413쪽.
- 권보드래, 『신소설의 성(性)·계급·국가』, 『여성문학연구』 제2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12, 26~37쪽.
- 박경화,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고부웅 편,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152쪽.
- 이혜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64, 2008.

- 임유경, 『북한 소설과 기억의 정치학-‘비전향장기수 주제’를 중심으로』, 『사이』 4, 2008.
- Ashis Nandy, “Sati: A Nineteenth Century Tale of Women, Violence and Protest”, *At the Edge of Psychology-Essay in Politics and Culture*, Delhi: OUP, 1980, pp.1~31.
- Bill Ashcroft et al., *The Empire Writes Black*, London: Routledge, 1989, p.178.
-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edited by Cary Nelson & Lawrence Grossberg, *Marxism and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6, pp.271~313.
- Hayden White, “The Value of Narrativity in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edited by Thomas Mitchell, *On Narra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p.2~3.
- Sonali Perera, Rethinking Working-Class Literature: Feminism, Globalization, and Socialist Ethics,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Vol. 19, No. 1, 2008, pp.2~10.

Abstract

## The Time of Repatriation and Reinstatement

—The epics of women who experienced exile

Jang, Young-eun

This essay starts from a critical review of Spivak's argument that explains the resistance of silence and its meaning by raising the issue "Can the Subaltern Speak?" The starting point of this essay is interest in women who speak and write for survival as much as for interpreting silence or death as resistance or transposition performance. In particular, it pays attention to petitions and memoranda written by women who write for survival in the place of exile or for returning. Focusing on the petition that Ju Se juk submitted to Stalin in 1946 and the memorandum of exile published by Park Seong hee in 1999, this essa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subject restoration inherent women's epics of exile as the process of reinstatement.

**Key words** : exile, repatriation, purge, reinstatement, subaltern, sati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